

aT, 급식·정부비축·품종다변화 등 ‘국산밀 산업’ 활성화

‘국산 밀 데이’ 추진해 교육·홍보
전문생산단지 설명회서 정책 소개
황금알 품종 추가… 선택 폭 넓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우리 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에 나섰다. 국산 밀의 정부비축을 올해 총 2만여 톤(t) 규모로 확대하고 학교급식 등에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재배 밀 품종의 다변화도 추진하고 있다.

aT는 2020년대 들어 국내 밀 생산 및 소비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산 밀 데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등 대량 수요처를 대상으로 국산 밀 사용을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개최된 국산 밀 데이 행사에서 aT는 기관당 최대 210만 원의 식재료비와 홍보비를 지원했다. 전국 43개 초·중·고교를 선정해 1만8000명을 대상으로 국산 밀을 홍보했다.



지난 5월27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2025 국산 밀 전문생산단지 설명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T

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학생들이 국산 밀로 구성된 식단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연 6회 이상 ‘국산 밀 데이’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단기적인 급식 제공을 넘어, 국산 밀의 맛·영양·환경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하는 사업이다. 국산 밀에 대한 우수성과 활용 가능성을 두루 알려 소비 확대에 연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T의 문인철 수급이사는 “국산 밀 데

이는 학생들이 국산 밀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공공급식처럼 대량 소비가 이뤄지는 현장을 중심으로 국산 밀 소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영양교사·조리 종사자 대상 간담회, 급식 박람회 참가 등도 함께 추진해 국산 밀 소비 기반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7일에는 전남 나주에서 전국 103개 국산 밀 전문생산단지·컨설팅기

관 소속관계자를 대상으로 ‘2025년 국산 밀 전문생산단지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aT는 국산 밀 정부비축 사업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국산 밀 산업 육성계획 ▲정부비축 추진 절차와 단계별 유의사항 ▲국산 밀 품질관리 기준 연구 결과 등이다.

aT는 행사에서 국산 밀 정부비축 사업이 올해 총 2만3000톤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밀 전문생산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매입을 진행하며,

매입 시에는 제빵용, 제면용 등 용도별로 품질기준을 세분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용도에 맞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기존 매입품종인 새금강, 금강, 백강 외에도 ‘황금알’ 품종을 추가해 농가의 선택 폭을 넓혔다. aT의 품질안전부에서 안전성 검사도 지원해 농가의 검사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수요가 높은 제빵용 품종의 생산 확대를 위해 제면용 품종과의 가격 차이 조정에 나서고, 수요처 맞춤형 재배를 유도해 국산 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간다는 방침이다.

문인철 이사는 “밀산업 육성법 제정 5년이 지난 현재, 국산 밀 산업은 2차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정부비축 체계를 마련해, 밀 재배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국산 밀 산업의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환급 이용대상 확대

농어촌공사 ‘환급 간소화 서비스’
2인 이상 공동명의 환급 청구 가능
온라인 신청 시 2일 이내 환급금 지급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을 청구할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한국농어촌공사는 9일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 대상을 확대해 왔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앞으로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최대 5일이 소요됐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 분할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일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공동명의인 경우라도 본인이 아닌 위임자가 대신 신청을 하거나 비균등 분할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이용해야 한다.

최진백 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장은 “앞으로도 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지보전 부담금 관련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근로복지공,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충

토스, 올해 말까지 설치 예정
자사 계열사·인근 중소기업 함께 이용

근로복지공단은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크플레이스에서 토스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대기업 또는 지자체가 부지나 비용을 지원하고 다른 중소기업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직장어린이집 중에서도 부모 만족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공단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과 함께 홍보와 상담, 교육을 담당한다.

협약을 통해 토스는 자사 계열사와 인근 중소기업이 함께 이용하는 직장어린이집을 올해 12월까지 설치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토스 본사에서 상생형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오른쪽부터 형희환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국장, 정희연 토스 인사및 복지총괄임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앞서 공단은 중소기업 2개소 이상이 함께 운영하는 어린이집 10개소를 공동 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을 통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으로 승인했고, 긴급돌봄 지원 등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업인력공, ‘해외 경험’ 청년 재취업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종합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경험 후 국내에 복귀한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 ▲전문가 세미나 ▲해외경력자 멘토링 ▲실전 모의면접 ▲일자리 매칭 등의 취업 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해외 취업·봉사·인턴·유학·창업 등 다양한 해외경험으로 글로벌 역량을 쌓은 청년들이 국내기업의 해외진문가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월드잡플러스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해외취업연수, 알선, 해외 일경험 등 ‘해외취업지원 서비스’ 범위를 국내 재취업으로 있는 ‘글로벌 경력개발 관리’로 넓혀갈 계획이다.

공단은 그간 ▲국가별 노무 상담 ▲마음챙김 프로그램(전문심리상담) ▲부당사례 신고센터 ▲해외취업자 스텝업(재취업지원) 등 해외취업자 사후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그 중 해외 경험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내 복귀 청년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해외취업자스텝업’ 사업을 추진,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0명을 국내 재취업시킨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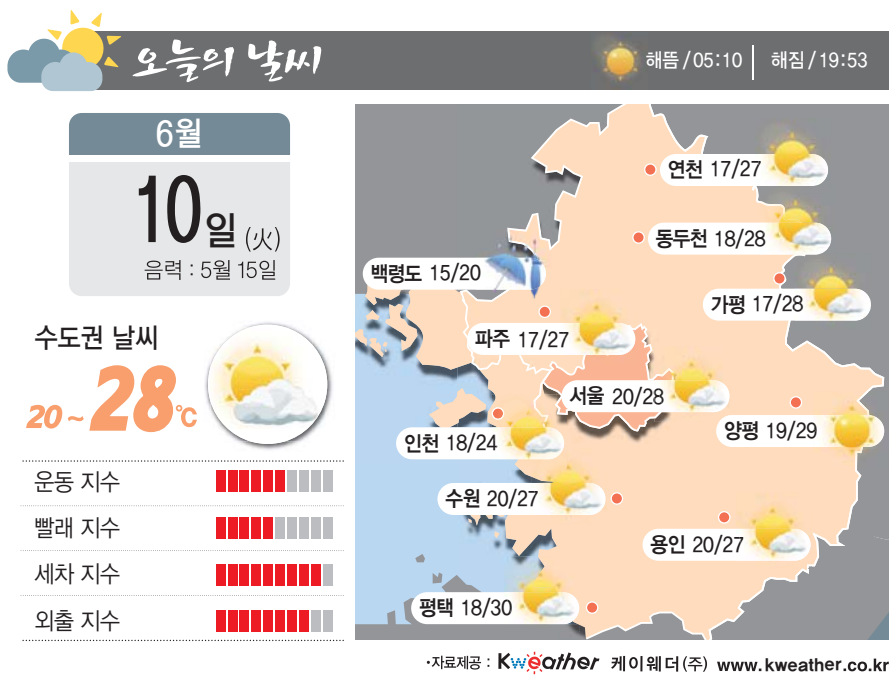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정식사업으로 확대된다.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글로벌 커리어 리턴업’과 일자리 매칭 박람회인 ‘글로벌 커리어 리스타트’로 구성된다.

글로벌 커리어 리턴업 프로그램은 6월 10일부터 연말까지 총 900명 규모 참가자를 상시 모집하고, 글로벌 커리어 리스타트 박람회는 오는 9월 11일 개최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해외경험 후 국내 재취업을 희망하는 34세 이하 청년으로, 프로그램 일정 및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대한민국 글로벌 청년 인재의 성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LA시위대·당국 대치 위험수위… 美당국 “비상
상탄 사용 허가” /사진 뉴시스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또 공습… 헤즈볼라 1명
과 민간인 3명 사상

▲다시 트럼프 펀드는 머스크… ‘LA 시위’ 연방정
부 대응 지지
▲교황, ‘배타적 민족주의’ 우려하며 “장벽 없애
야”… 트럼프 겨냥한듯

▲美-이스라엘, 레바논 유엔군 UNIFIL 활동 중단
합의… 47년만 종료 위기
▲가자 구호물품 신고 항해해 온 톤베리 등 활동
가 억류·구호물품 압류